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6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 Interview

연구/원/소식



정책토론회 [한미FTA와 인천]
2007년 6월22일 금요일 오후
1시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
당에서는 ...

인천/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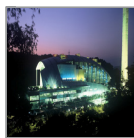


인천대공원 나들이
인천대공원은 인천 유일의 자연
녹지 대단위 도시자연공원
으로 남동구 장수동...



인천음식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세월은 변해도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더
불어 고스란히 남아있는향
토...

시/정/연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효율성 증
대방안
환경기초시설의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

도/시/동/향



작지만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 코펜하겐
덴마크어로 '괴벤하븐'인
코펜하겐은...

신/간/소/개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
회곽묘(灰槨墓)는 고려
말기 비롯되...

ID인/터뷰

인천음식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Cover Story

ID인/터뷰

연구원소식

인천인들이

시정연구

도시동향

신간소개

2007년 6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세월은 변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더불어 고스란히 남아있는 향토와 향수가 깃든 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인천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정성이 깃든 음식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인천의 향토전통 및 특색음식 경연대회, 맛 있는 집과 특색음식거리, 모범음식점 등이 참여하는 품격 있는 먹거리와 영양체험과 운영, 문화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함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어우러진 음식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Q 음식을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인천음식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음식축제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A 한국음식의 특징은 축제음식이고, 발효음식이며 정성이 깃든 음식입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무수히 들어왔던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머리에 소나무가 난다, 음식을 남기면 가난하게 산다, 음식을 줄 때 한 손가락씩 주지마라, 인정 없다' 등 전해오는 옛 이야기를 분석해 볼때 우리선조들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슬픔과 괴로움을 더불어 살아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은 변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더불어 고스란히 남아있는 향토와 향수, 그리고 정성이 깃든 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인천음식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향토전통 및 특색음식 경연대회, 맛있는 집과 특색음식거리, 모범음식점 등이 참여하는 품격있는 먹거리와 영양체험, 문화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과 함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음식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Q 인천음식축제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열리는 인천음식축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2007년 인천음식문화축제는 2007년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중점행사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 Expo개최 및 인천방문의 해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개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열풍을 몰고 온 드라마 대장금 궁중음식을 재현, 지역특산물 전시, 향토전통·특색요리 경연대회 등 중점 전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계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도 실시하여 인천음식축제를 하나의 고유한 인천음식문화축제 장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Q 2002년에 시작된 인천음식축제가 올해로 6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음식축제는 모든 계층 시민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인천음식축제는 어렸을 때 설날 칼날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운밤 방앗간에서 가래떡 먹던 추억, 흥겨운 옛장수의 구성진 가락, 떡메치기 등 시민들

의 호기심과 주의를 되살리는 행사를 마련해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800명분 빵 나눔의 행사, 노인 300명 초청무료음식
시식회, 사랑의 김치 만들기 및 나눠주기, 힙합공연, 댄스 페스티벌, 남사당놀이,
시민노래자랑, 가족단위 케익만들기 등 65,000여명 인천의 전계층이 주인공이 되
서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어 인천의 맛과 맛뿐만아
니라 문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리운 추억을 상기시키고, 사람들과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면서 다소 삭막했던 세상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진 것 같아
축제를 준비할 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람되게 느껴집니다.

Q 3일간의 짧은 축제지만, 그 기간동안 음식축제를 통해서 인천시와 시민들에게 많
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인천음식전시관, 향토전통 및 특색요리 경연대회 출품 작품전시, 강화지역 브랜드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군·구별 대표음식과 특색음식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우리고장 인천의 특색음식을 알리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빵 나눔행사, 노인초청 무료음식시식회, 독거노인
제공 사랑의 김치만들기 행사 등 나눔행사의 실시로 소외계층 및 시민참여의 기회
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지방 측정 영양상담 웰빙식단 모형전시 등으로 꾸미지는 영양체협
관을 운영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2007년 음식축제를 함께 할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A 2009인천세계도시 Expo 및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2007년 인천음식축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개최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국제도시 인천의 "맛" 과 "멋" 을 대내·외 알림과 동시에 음식문화개선 및 국제행
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
합니다.
2007년 10월 5일부터 개최될 인천음식축제에 참여하셔서 인천의 음식과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들을 체험하고 이웃간의 정도 나눠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6인천음식축제 행사 모습

연/구/원/소/식

6월 대화의시간



2007년 6월 7일

인천발전연구원은 6월 대화의 시간을 통해 '사진촬영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현장조사에 필수적인 사진촬영에 관해 올바른 카메라 사용법에서부터 다양한 사진촬영기법까지의 이론과 실기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기념 세미나



2007년 6월 14일

2007년 6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천파라다이스호텔 에메랄드홀에서는 지난 4월 17일 확정된 2014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통한 향후 인천시에서 경제·사회·생활 등의 파급효과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연구기관·대학·관련단체 등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책토론회 [한미FTA와 인천]



2007년 6월 22일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는 '한미FTA와 인천'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한미FTA의 영향과 대응책 마련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의 대응전략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나/들/이

인천대공원 나들이

도시환경연구실 신인수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6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대공원은 인천 유일의 자연녹지 대단위 도시자연공원으로 남동구 장수동 관모산(160m) 일대에 걸쳐 있으며 소래산 줄기의 상아산(151m)과 거마산(209m)을 끼고 자리했다. 총 면적은 2,983,542㎡(20

가족 나들이 가세요~!

인천대공원

인천에서 가벼운 가족 나들이 장소를 찾는다면 반드시 거론될 장소 중 하나가 인천대공원일 것이다.

인천대공원은 인천 유일의 자연녹지 대단위 도시자연공원으로 남동구 장수동 관모산(160m) 일대에 걸쳐 있으며 소래산 줄기의 상아산(151m)과 거마산(209m)을 끼고 자리했다. 총 면적은 2,983,542㎡(2004년 기준)이다.

연차적 조성사업에 의해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대공원은 주위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속에서 농촌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며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만든 공원이어서 공해없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 곳의 주요시설로는 200여 점의 기암괴석이 전시된 수석공원과 식물원·장미원·조각공원·인공호수 등과 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배구장·궁도장·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10km정도의 산책로가 나 있으며, 산책로 중간에는 인공암벽도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과 전망대, 매점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곳은 사계절 테마가 정해져 있어, 봄에는 벚꽃과 유채꽃, 여름에는 장미와 삼림욕, 가을에는 단풍과 야외축제, 겨울에는 눈썰매와 관련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인천대공원은 앞서 말했듯이 계절별 테마가 있어서 때마다 색깔옷을 갈아입는다. 특히 인천대공원의 가을은 운통 노란 물결이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가 장관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곳을 지나면 휴게소 오른쪽에 자연생태원이 있다. 자연생태원에는 강아지풀, 갈대 등 우리들에게 익숙한 식물과 올챙이, 고래 등과의 회귀식물도 있다. 생태원의 총 280여종의 식물은 잎을 숙거나 농약을 주는 인위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푸르른 모습을 볼 수 있다. 1주일 전에 전화예약하면 전문안내원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대공원길



자생식물원

휴게소 왼쪽에는 주먹보다 작은 돌부터 어른키보다 큰 수석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는 수석공원이 있다. 수석공원을 지나 자연생태관에서는 수련과 인동, 부들 등의 습지식물과 그 위를 나는 잠자리떼를 볼 수 있다. 동식물 등의 표본을 전시한 생태전시관 옆으로는 장미원이 조성되어 있어, 초여름이면 빨강고 노란 장미들이 만발한다. 장미원 중간에 있는 분수대는 특히 방문객들 중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장미원 옆으로는 자생식물원과 일반 식물원이 있으며, 1996년에 개원한 식물원에는 열대과수, 관엽식물, 지피식물, 남부식물, 수생식물 등이 있다.



장미원 ↑



식물원전경 ↓



호수전경 ↑

인천대공원 중앙에 조성된 인공호수에는 청둥오리와 각종 어류들이 살아가고 있다. 2006년에 인공호수 내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한층 더 볼거리를 만들었으며, 데크를 설치하여 물고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공원안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물 체험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이 동물들을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어린이동물원이 있으며, 어린이동물원에는 돼지, 공작, 꽃사슴, 풍산대 등 42종 232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어린이동물원 체험현장

또 하나의 볼거리는 인천대공원 옆 장수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수령이 800여년 된 은행나무다. 이 은행나무는 키가 약30m, 둘레가 약 8.6m이며, 5개의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액운이나 돌림병이 돌면 이 나무에 제물을 차려 놓고 치성을 올리거나,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기도 했다.

장마를 지나면 이제 곧 불볕더위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돗자리 하나 들고 가벼운 피크닉가방을 준비해서 인천대공원에 가보자.

시원한 분수대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나무 그늘 아래서 가족과 혹은 연인과 함께 싱그러운 자연을 만끽해보는 것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즐기는

건강한 여름나기의 하나가 아닐까.



800여년된 은행나무

○ 인천대공원 개장시간 05:00~23:00(동절기 05:00~22:00) ○
매주 월요일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은 휴원
입장료는 무료!

시/정/연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도시환경연구실 윤하연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6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환경기초시설의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직영, 민간위탁, 중간관리방안을 폭 넓게 비교 함으로써 운영형태별 효율성과 민간위탁 전·후의 효율을 분석하여 환경기초시설별 적절한 운영주체를 제시하자 함.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배경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들이 공공부문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그러나 민영화가 장기화되면서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어 민간참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운영주체별 효과분석, 민간위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나 기준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

환경기초시설의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직영, 민간위탁, 중간관리방안을 폭 넓게 비교함으로써 운영형태별 효율성과 민간위탁 전·후의 효율을 분석하여 환경기초시설별 적절한 운영주체를 제시하고자 함.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형태별 장·단점을 기초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민간참여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도개선 측면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

환경기초시설의 운영형태별 효율성 분석 결과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형태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에 의한 위탁의 정도가 클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직영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운영비를 적절히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의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분석에서는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민간위탁 시설보다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 소각시설의 경우는 운영, 인력관리, 처리효율성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다만 처리비용의 자립도 측면에서는 낮은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처리시설의 문제이기 보다는 인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주체 선정 방안

운영주체별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나 공사(공단)의 형태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단으로 운영이 위임되는 시설의 선정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운영경험도 많아 공단화를 통한 민간참여의 확대나 직접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 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구조를 개편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반면, 소각시설은 전문적 운영기술이 요구됨에 비해 현실적으로 해당기술을 가진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만약, 공단화를 추진한다면 공단 인력이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민간과 공단이 함께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이 요구되거나 민간기업의 운영인원을 공단으로 흡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매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축적도 적고 운영점검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경영결과로 나타난 모든 성과의 공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시민들이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평가단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식으로 환경기초시설간의 전산화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증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전능력의 확보 및 운영기법 축적을 위한 적절한 민간위탁 기간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시간소개

2007년 6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이 연구는 드라마 세트 방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천지역의 한류관광을 개념과 현상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인천시나 관계 구·군 등의 대응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인천지역 한류관광 실태 및 대응정책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드라마 세트 방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천지역의 한류관광을 개념과 현상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인천시나 관계 구·군 등의 대응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류관광의 개념과 인천지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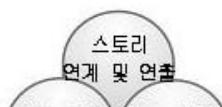
연구에서는 한류관광의 개념을 '한류 즉 한국 대중문화 선호현상에 기반하여 촬영지 방문, 스타 미팅, 공연관람, 음식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방한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인천지역의 한류관광은 풀하우스, 슬픈연가, 천국의 계단 등 드라마세트방문을 중심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는 2005년 8월, 슬픈연가 세트는 2006년 7월 유료 개방되었으며, 2005년이후의 한류관광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 영상관광 특성을 보이는 한류관광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 가지지 못한 인천지역의 입지 강점을 활용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인천시와 관계 구·군의 정책 과제는 '한류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해당 지역사회의 편익을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한류 및 영상 관광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유지·지속·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연구에서는 통합적 지역관광 정책 기획과 마케팅 체계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인천시의 대응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자는 한류관광자원을 포함한 지역 스토리텔링 관광정책 추진과 주민참여형·네트워크형 관광정책 추진의 개념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매크로한 지역관광정책의 관점에서 한류관광자원과 지역관광자원의 연계와 이에 기반한 지역사회 편익 창출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와 슬픈연가 세트가 소재한 웅진군 북도면 시도 일원을 대상으로 구상 계획의 차원에서 제안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기획 요소

- ① 스토리 로드 연출



- ② 지역관광센터 조성
- ③ 스토리텔링 시설물 정비·설치
- ④ 스토리가 있는 이동환경 조성
- 드라마 세트의 문화적 재구성
- ⑥ 주제가 뚜렷한 문화이벤트 개최

한류관광자원 포함 지역 스토리텔링 관광 기본방향

그리고 마케팅 체계 구축은 관광시장의 확대와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역 내부 마케팅 이해 주체를 결합한 통합적 마케팅, 한국관광공사·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적 마케팅, 그리고 각종 지적재산권 사용권리 확보 등의 사전 기획된 마케팅 체계 구축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한류관광 현상을 매크로한 지역관광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주로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의미에서 인천지역의 한류관광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와 관계 구·군의 대응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인천관광' 연구에 기여한 점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 한류관광객의 국적별 파악이 불가능하여 시장별 대응 정책은 제시되지 못했는데,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로 사료된다.

해/외/출/장/리/포/트

작지만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 코펜하겐

도시계획·교통연구실 신도겸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시간소개

2007년 6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덴마크어로 '뢰벤하븐'인 코펜하겐은 상인의 항구라는 의미이며, 13세기부터 항만도시로써 발전하여 왔다. 코펜하겐은 비록 국가의 수도이지만, 북유럽의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 중 하나이다. 인구 50만은 우리나라 의정부시나 천안시 정도에 불과하다.



레고와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 왕국, 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언제 코펜하겐하면 동화속 도시가 떠오른다.

덴마크어로 '뢰벤하븐'인 코펜하겐은 상인의 항구라는 의미이며, 13세기부터 항만도시로써 발전하여왔다.

코펜하겐은 비록 국가의 수도이지만, 북유럽의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 중 하나이다. 인구 50만은 우리나라의 의정부시나 천안시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코펜하겐이 다른 국가의 대도시들보다 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세계에서 살기 좋기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이다. 코펜하겐의 도시 기반 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말할 수 있다. 비록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일은 단연코 없을 것이다.

비행기에서 맛있는 빵 조각만 먹다가 도착한 코펜하겐 국제공항.

한 국가의 첫인상은 대부분 공항에서 판가름 난다고 하였다. 나에게 코펜하겐 공항의 첫인상은 '좁 작은 듯싶다' 였다.



코펜하겐 국제공항 터미널 전경

그러나 1925년에 건설된 코펜하겐 가스트럽(Kastrup)국제공항은 보행자와 장애인을 위한 이동 시설과 편의의 제공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공항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로 코펜하겐 공항은 'Passenger escort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서 비행기 탑승구나 공항 출구까지 보호 및 활동보조를 해 줄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코펜하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코펜하겐 도자기? 근위병?..... 그래, 이건 아마도 직업병일 것이다.

내 정답은 자전거다!

코펜하겐은 자전거 이용자의 천국이다.

다양한 교통수단 중 자전거 이용비율이 20%에 달하는 코펜하겐 시내를 걸으면서 차로를 썩썩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코펜하겐의 자전거 도로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자전거의 지위와 시민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 도로에 자전거 도로라고 선하나 그어놓거나, 색깔만 칠해 놓은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전혀 차량과 마찰도 없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당당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다.



덴마크에선 자동차나 자전거나 동등한 교통수단이다.



코펜하겐의 대중교통은 티켓 한 장이면 모든 교통수단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이다. 물론 1일권, 1시간권 등 종류는 다양하다. 시간을 잘 지키는 시내버스, 깔끔한 지하철, 탈만한 Tram(트램) 그리고 모든 수단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과 배려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지하철이다.

지하철역사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멀리에서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이라 한다. 플랫폼과 외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 거의 간격이 없는 플랫폼과 지하철 문 사이, 역시 최고다.

트램과 버스의 경우 휠체어 출입문에는 노란색 버튼이 있어 운전사가 교통약자가 탑승 중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 또한 돋보인다.

코펜하겐에는 지하도가 없다. 물론 육교도 없다. 왜?

두 다리 멀쩡한 사람도 이용하기 불편한데,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도로를 건너는 시설은 모두 평면화되어있다. 보도는 넓적넓적하고, 장애물이 없어서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공원 및 녹지가 많기 때문에 가로수도 별로 없고, 전기선 역시 일찍이 지하에 묻어서 전봇대 역시 없다. 우리나라를 보면 가로수와 전봇대가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다. 넓고 평탄한 보도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다.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용중인 사람들.
'그대 유모차밀고 거침없이 달려라-'
그 무엇이 우리를 막을 것인가?



교통 경찰관? 과속으로?

◀ 이전기사

| 다음기사 ▶

≡ 전체기사목록

개인적으로 외국도시의 가장
부러운 점이다.

우리도 도심에서 이런 여유를 즐기고
싶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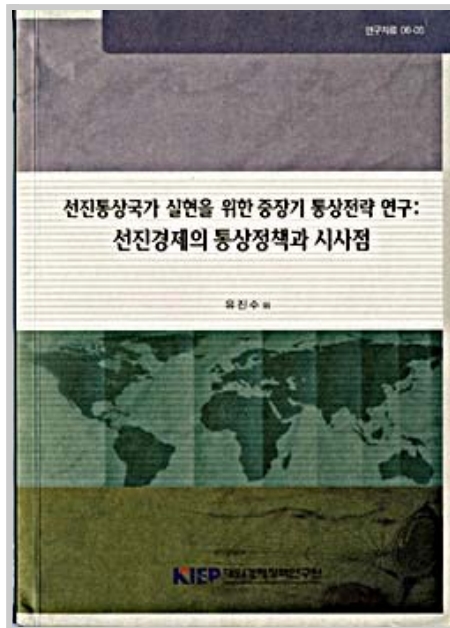


코펜하겐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참 아담한 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심지는 걸어서 모든것을 해결 할 정도의 거리이며, 복잡하고 부산한 서울, 런던이나 파
리와 비교하면 한적하기까지 하다. 뉴욕이나 런던의 비즈니스맨의 생활을 동경한다면 사
람에 따라서는 생동감을 느끼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화의 여백의미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있을건 다 있지만, 여유가 있는 도시,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코펜하겐이다.

신/간/소/개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바뀌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고 통상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보고자 시도된 연구. 선진국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활용해 왔으며, 통상 정책 측면에서 본 선진경제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한국의 통상정책과 이들이 추구하는 통상정책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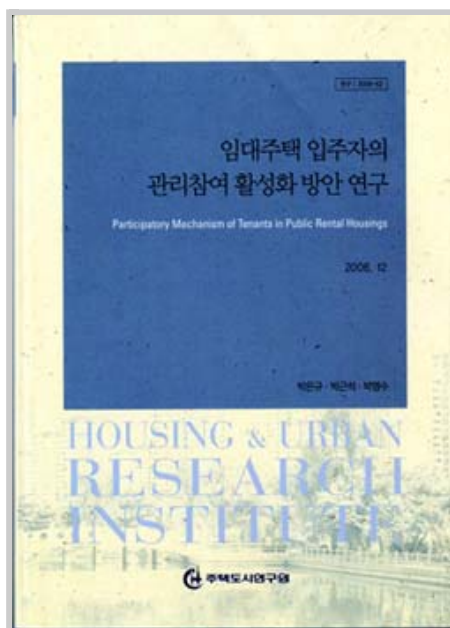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6월 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주택도시연구원

임대주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주자의 개별적 욕구 수용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참여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참여를 강화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여제도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입주자 설문을 통해 요구 사항을 분석한 후, 외국 운영사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입주자 관리 참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회곽묘(灰槨墓)는 고려 말기 비롯되어 조선 시대 성행한 묘의 종류로서, 토광 안에 생석회로 곽을 만드는데 겨우 관을 안치할 정도로 만든다. 도로개설 공사도중 인천 석남동에서 회곽묘가 발굴 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여자단령, 상의 등의 유물들을 수습하고 보수하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복식된 유물들에 대해서 이후 전시 형태 및 관리에 대해서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다.